



종계생산성 하락원인과 대책

질병의 굴레를 벗어 버리자



이 종 길 (주)하림 고문

2006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해를 회고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제반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로 새로운 기록들이 양산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된다.

1. 종계 생산성 저하 현상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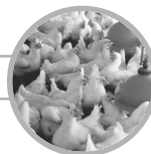
2006년은 지난해 과잉 입식된 종계로 인하여 엄청난 불황에 휘말리는 한해가 되리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였으나 결과는 상상의 외 호경기를 구가하는 한해가 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종계의 생산성 악화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종계입식 수수에 따른 육용 실용계 생산 잠재력이 10월말까지 4억6천만수

로 추정되어 전년 동기 대비 23%가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전년대비 생산과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는 지난해부터 미리 불황을 예고하면서 환우를 억제하고 무리하게 산란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가급적 자제하여 준 종계인들의 노력도 큰 몫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금년 9월까지의 육계도계 수수가 3억 5,340만수로 지난해 9월까지의 도계숫자 3억 4,400만수와 비교하여 2.7%의 증가에 머문 것만 보아도 여실히 증명이 된다. 전체적인 도계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삼계숫자가 금년 9월까지 전년 동기 8,110만수보다 931만수가 더 늘어난 9,041만수였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결과로 육용 실용계 가격은 평균 500원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산지육계 가격도



1,200원 이상을 상회하는 상상외의 가격을 형성하였다. 일부 업체에서는 병아리 구매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한해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계열 업체에서는 종계구매에 혈안이 되었으나,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종계를 직접 수입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마니커에서 원종계까지 들여오기로 하면서 국내 원종계 시장이 4파전을 형성하게 되었다.

참고로 9월까지의 닭고기 수입량은 53,936톤으로 전년 동기의 53,239톤과 거의 비슷한 물량으로 수입닭고기가 시장에 특별하게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지는 않는다.

2. 유난히 길었던 여름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종계의 생산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육계 사육농가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하림에서는 하이 닭(대닭)이

시판물량과 발골육 등으로 매일 15만수 이상이 필요하나 계속되는 더위로 하이물량 공급에 애로가 많았으며, 겨울철 혹한기와 여름철 혹서기에는 안심하고 하이 닭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는 현실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타까우며 한시바빠 개선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앞으로의 기후는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면서 혹서와 혹한은 갈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므로 종계농가와 실용계 사육 농가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전천후 시설을 빨리 서둘러서 2~3kg중량의 닭도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사계절 동안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발판을 시급히 마련하여 수입 닭의 대체는 물론이며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이 닭을 사육 시에는 생산 원가도 많이 절감되어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도 될 것이다.

3. 9, 10월 유례없는 육계 성적

2006년 9월과 10월은 우리나라 육계 산업에 금자탑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한 달 전인 8월만 하더라도 늦더위로 더위폐사가 두려워서 센터중량만 되면 빨리 출하시켜 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9월부터는 센터중량에는 출하를 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려서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원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닭이 잘 자라 주었다는 것이다. 육계산업 역사에 이렇게 닭이 잘 클 때가 없었다.

보온덮개로 지은 평범한 농장에서 30일간 사육해서 평균체중 1,790g, 사료요구율 1.5, 육성율 101%, 생산지수 401이 나왔다(충남 당진지역 농가).

남원지역의 한 농장에서도 34일간 사육해서 평균체중 2,105g, 사료요구율 1.52, 육성율 98%, 생산지수 399를 달성하였다.

이는 육종회사의 매뉴얼 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이며, 이렇게 닭이 잘 자라는데 크게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다. 최고의 성적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닭이 잘 자라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갑자기 병아리가 좋아지고, 사료가 좋아져서 그런 것일까? 농장에서 관리를 잘해 주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미국산 옥수수의 영향도 일부는 차지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상기의 몇 가지 사항들이 부분적인 영향은 미쳤지만 근본적

인 원인은 9월과 10월의 기후가 닭이 자라는데 최고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며, 아울러 인위적으로 9월과 10월 같은 환경만 제공할 수 있으면 연중 위와 같은 사육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가 103년인데, 103년 중에서 금년도 10월 달이 가장 더운 10월 달이었다는 기상대 발표내용도 상기의 내용들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대부분의 농가들이 1~4월까지의 기간에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 한냉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기후에 혹한까지 겹치면서 열악한 사육환경은 자연의 재해에 무력함을 드러내고 만다. 그리고 7, 8월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뜨거운 공기와 지나치게 높은 습도로 인하여 혹서의 피해에서 벗어나질 못하므로, 연중 절반은 자연재해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마는 연중행사를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안전 양계산물 생산에 관심을

며칠 전, 새벽 4시에 YTN 뉴스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경기도의 한 돼지 사육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돼지 2,000두를 사육하는 농장인데, 질병으로 50%정도는 폐사하고, 일부는 억지로 처분했는데 돼지가 죽으니까 매일같이 주사를 놓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하면서, 심한 경우는 항생제를 몇 가지를 혼합해서 찌른다고 했다.



양돈장은 먼지와 거미줄, 돈분으로 뒤덮여 있었고 주위에는 항생제 주사용 약병이 몇 자루 수북이 쌓여 있었다. 지난해 가축용으로 팔린 항생제는 5톤 트럭으로 187대분(935톤)이나 되며 스웨덴의 24배, 노르웨이보다 18배나 많은 수치라고 했다. 당연히 양돈업계에 불똥이 튀었다.

최근의 잇따른 항생제 보도와 관련, 소비자 불신 심화로 그동안 쌓아온 자조금 사업의 성과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항생제와의 전면전을 공식 선언했다.

한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농림부 직속으로 항생제 대책위원회회를 구성,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의사 처방전 도입에 관해서는 농경연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많은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이 질병에 걸려 죽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난계대 질병이 있는 병아리가 분양되면 항생제를 매일같이 상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

살모넬라가 있는 병아리는 절대로 분양해서는 안 된다. 종계의 생산성은 엉망인데 병아리 시세는 좋고, 일부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항생제와의 전쟁에서 헤어날 수가 없으며 급기야는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육계 산업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5. 종계 사육시설 열악

전국적으로 종계육성농장으로 합당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종계장은 미미한 수준이며 쉽게

표현해서 삼계 사육하기에도 어려운 농장에서 종계 육성을 하고 있으며 육성 비용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육성과정에서 종계가 망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일부 종계장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로, 첨단 육성농장과 종계장 시설을 갖추고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생산성으로 200원대의 저렴한 원가로 최고의 병아리를 생산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범 업체도 있는 반면 열악한 환경에서 400원대에 육박하는 병아리를 생산하여 자신은 물론, CC농장까지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업체까지 공존하는 현실에서, 2010년부터는 육계 사육농장에도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게 됨을 깊이 인식하고, 빠른 대응책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하였다.

6. 국내 사육농가의 실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중 절반이상의 기간은 열악한 사육환경과 급변하는 기후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업계의 장래는 요원하므로 우리들이 합심 단결하여 연관업계와 단합하여 천직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받아서 우리나라의 9~10월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첨단시설의 종계장과 육성농장, 육계농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위농가와 하위농가의 생산원가는 kg당 200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대형 닭을 사육하면 원가도 절감될 뿐 아니라 연중 7~8회전 이상의 사육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머지않아 FTA로 수입이 완전 개방되고 관세



가 철폐되어도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종계에서 최상의 병아리가 분양되므로 항생제 문제도 저절로 해결 될 것이므로 HACCP적용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빠른 시일 내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하여 홍보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성인병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닭고기 소비홍보에 주력하여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대형 닭을 생산하여 수입닭고기 시장을 대체하고 틈새시장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에도 대형 닭을 발굴하여 신선육을 수출하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전천후 설비를 갖춘 첨단농장으로 탈바꿈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의 주도하에 모든 관련인들의 노력과 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방이 최우선

질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항생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발상이며, 사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차단방역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종계농가에서도 건강한 계군에서 생산한 병아리만을 공급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농장전체를 소독하고, 출입 시 솔선해서 차단방역을 실천하여야 하며 농장주의 가족들부터가 솔선해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은 흉내만 내면서 상대방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로 필드에 나가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농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양계**

양계속보 게재내용 및 구독안내

1. 게재내용

- 가. 새소식 : 국내외 양계업계 소식 및 질병, 생산과 관련된 각종 새소식 등을 게재
- 나. 금후전망 : 양계산물 유통에 대한 금후 전망을 육계, 달걀을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
- 다. 양계산물 시세 : 일별 달걀, 산지 육계가격 및 각종 병아리, 노계, 토종닭 시세 등
- 라. 10대 회사 주간 양계사료 생산실적
- 마. 육용종계 · 실용계, 산란종계 · 실용계의 주간 종란입란 및 병아리 발생실적

2. 구독료 및 구독방법

- 가. 구 독 료 : 1부당 연간 회원 - 5만원, 비회원 - 15만원
- 나. 발송방법 : 팩시밀리 또는 E-mail
- 다. 발송횟수 : 주 2회(화, 금요일)

3. 구독신청 및 문의

- 농협 097-01-000953(예금주 : 대한양계협회)
- (☎ 02-588-7651 담당 : 이 남 희)